

새로 나온 詩集

겨울에도 크는 나무

權善玉 지음

1976년 「현대시학」 추천을 통해 시단에 나온 시인의 「母音」, 「꽃사랑」, 「떠도는 金時翹」에 이은 제4시집. '그리운 사랑의 나라' '비밀일기' '그게 아니었다' '칠판 앞에서'의 4부로 나누어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묶었는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선명한 실체가 뜨겁고 맑은 내면의 성숙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문학세계사 / A5신 / 118면 / 2400원

세상 사는 이야기

권영춘 지음

「현대시조」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난이 눈뜨는 방」 「기린봉」 등의 합동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조시인의 첫 개인시집. 시조 특유의 4·4조 율격에 충실하면서도 풍부한 서정의 울림을 갖는 작품 60여편을 4부로 나누어 실었는데, 동양철학에 근거한 화해와 조화의 시정신을 일관되게 드러낸다.

장원 / A5신 / 100면 / 2000원

내가 그린 풍경

이승은 지음

KBS 주최 전국민족시 백일장(1979년)을 통해 문단에 나온 여류시조시인의 첫시집. '내가 그린 풍경' '별이 뜨는 밤' '못다 부른 노래' '달력 한장'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80여편의 작품을 실었는데, 전통적인 운율과 모국어의 미학에 충실한 시조문학의 본령을 만날 수 있다. "시적 대상에 손을 뻗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물을 안아 시로 형상화한다"는 것이 평론가 유한근의 평.

장원 / A5신 / 116면 / 2000원

우리 사랑에 눈물이 글썽거릴 때

신진호 지음

"한국문학사에 신선한 충격으로 던져질 싱싱한 작품만으로 틀을 형성" 하겠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보레아스선집'의 네번째 시집. "나 그뻐 알고부터 / 버릇 하나 생겼는데 / 잠 들어야 할 시간에 / 잠들지 못하고 / 깨어야 할 시간에 깨지 못하여 / 겹쳐진 시간엔 / 항상 / 그대 얼굴 그리다가 / 내가 죽겠는데" 같은 시구에서 보듯 이른바 '대중시'의 친근한 정서를 담은 작품 60여편을 수록했다.

해진서관 / A5신 / 120면 / 2000원

아내일기

양정자 지음

4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결혼생활 20여년에 걸쳐 쓴 시들을 모아 한권으로 묶었다. 빨래, 연탄, 밭고린내, 무말랭이, 못나고 위대한 남편, '죽여주는' 잠자리 등 일상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보이는 시 75편을 5부로 나누어 실었는데, 주부백일장 류나 여성해방문학적인 시각에 의해 씌어진 시들과는 변별되는 삶의 진솔함을 만날 수 있다.

정민 / A5신 / 140면 / 2200원

中國古代名詩選

허세욱 역주

魏晉 남북조 시대 이후 淸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유명시인 23명의 시 200여편을 한데 묶은 중국시 앤솔로지. 중국詩史의 특성상 唐宋시대에 치중돼 있기는 하지만 도연명에서 袁枚에 이르는 중국시의 정화가 고루 망라돼 있으며, 권두에 붙인 역사(고려대 중문과 교수)의 해설은 간추린 중국시사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해원출판사 / A5신 / 296면 / 4000원

오늘도, 피피피 새가 운다

윤강로 지음

1976년 「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온 이래 「불꽃놀이」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중견시인의 제3시집. "진실하게 실패하는 힘으로" 계속 써온 시 60여편을 '그림자' '불꽃' '황사일기'의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민중 순수 다 지우고 / 인간시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시를 위한 구도」의 한 구절이 이 시집을 관통하는 시정신의 일단을 드러낸다.

청하 / A5신 / 116면 / 2000원

작업일지

최석 지음

1987년 무크 「현실시각」 2집에 작품을 발표하며 시단에 나온 이래 「탈시」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현재 부산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시인'의 "육체의 일부인 머리로만 때우려는 무매한 인간들에 대한 경종같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상당한 지적 여과과정을 거친 매우 잘 짜여진" 작품 70여편을 한데 묶었다.

청하 / A5신 / 142면 / 2000원

사랑의 碑文

李尙圭 지음

「東洋文學」 제6회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시인이 知天命의 나이에 펴내는 처녀시집. 현실의 허무함 속에서도 그 허무감이 주는 좌절을 이겨내는 초극의 의지를 주로 노래한 시편 5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는 한편, 권말에 평론가 김남석의 해설 「허무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의지력」을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강 / A5신 / 90면 / 2500원

얼굴없는 사람과의 약속

정한용 지음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고 1985년 「시운동」에 작품을 발표하며 뒤늦게 詩作활동을 시작한 '평론가시인'의 첫시집. "나는 기억한다 /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 그렇다 지난 삼십년을 나는 / 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그 증오에 대한 / 복수심을 갈고 닦는데 / 보냈다"는 표제작을 비롯해 50여편의 작품을 한데 묶었으며, 시인 자신의 시론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먼 길」을 권말에 붙였다.

민음사 / A5신 / 110면 / 2500원

불란서 영화처럼

전연옥 지음

198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시단에 나온 여류시인의 첫시집. 멸치나 낙지, 굴비 같은 어류, 거미, 바퀴벌레, 민달팽이 같은 곤충류 등 일상적이면서도 참신한 시적 소재를 유기적이고 윤기있는 상상적 체계 속에 유니크하게 형상화한 작품 60여편을 한데 모았다. '개성적 상징의 반투명성'으로 시인의 시세계를 규정한 평론가 이광호의 작품해설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민음사 / A5신 / 116면 / 2500원

내고향 청솔밭

김영진 지음

우리들 향수의 원천이면서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돼버린 시골농촌의 산야와 그곳에서의 삶을 수채화같이 맑고 명징한 언어로 노래한 시집.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의 그리움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비애를 유년회상의 과거적 상상력에 기대 노래한 작품 8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시와는 별무상

관인 듯싶은 체육대교수(인천교대)의 시집이란 점이 특징적.

예전사 / A5신 / 136면 / 2500원

나의 어린 왕자

이상백 지음

1983년 「시문학」 추천으로 시단에 나온 이래 「물의 여행」을 통해 담백하면서도 강한 흡인력을 지닌 시편들로 주목을 끈 바 있는 여류시인의 제2시집. 자기고백적인 시적 공간의 직조 속에서도 뉘트리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감정이입에 있어서도 결코 정서적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작품 6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세계사 / A5신 / 88면 / 2400원

몸 풀리는 바다는 햇살에 감겨

姜景勳 지음

「風蘭小葉調」 등의 작품이 1985년 「심상」 신인상에 당선되며 시단에 나온 시인의 첫시집. "솔바람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 물을 끓이고 / 지리산이 그리울 때는 / 작설차를 마셔라" 같은 시구에서 보듯 '귀향과 至善'의 서정세계가 주조음으로 깔려 있는 작품 50여편을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일련의 '蘭詩'들로만 구성된 제1부의 시편들이 특히 이채를 띤다.

심상 / A5변형 / 128면 / 3000원

보헤미아의 작은 성들

네르발 지음 / 윤영애 옮김

"아마도 내게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땅기, 그것은 내가 시인임을 믿는 일일 것입니다"라던 프랑스시인 네르발의 작품을 붙여 原文 및 상세한 역주와 함께 엮은 책. 8편의 소네트로 구성된 네르발의 대표작 「공상시집」을 비롯해 「보헤미아의 작은 성들」 등 '너무도 주옥 같은' 네르발 시편들을 국내최초로 개인시집의 형태로 묶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해원출판사 / A5신 / 216면 / 3000원